

# 靑少年 價値意識의 變化와 展望

최 일 섭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청소년 인구의 동태
3. 청소년 가치의식의 개념
4. 대상지역에 따른 가치의식
5. 청소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 1. 問題의 提起

해방 이후 40년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의 諸生活領域에서 과거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왔다. 먼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4·19와 5·16으로부터 維新體制와 10·26사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변혁 속에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발전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경제적으로는 輸出立國이라는 기치아래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국가경제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도시화, 공업화,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각 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각계 각층의 구성원에게 문화지체현상으로 인한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自我正體感과 가치관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의식 구조와 행동양태를 형성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청소년의 가치의식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보자는 장기적인 안목과 현실적으로 청소년문제를 극소화시켜 보자는 단기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가치의식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가치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김경동1980:340) 다시 말해서 인간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보다 현명하게 적응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 환경을 개조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0년대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준비세대」로서 청소년들이 현재 형성해가고 있는 가치의식은 장차 우리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의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즉,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의식을 지니도록 교육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의 사회를 건설해보자는 것이 성인세대의 관심의 일단인 것이다.

청소년들의 가치의식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심은 2000년대의 우리 사회를 염려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는, 차라리 현재 청소년들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비뚤어진 가치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저질러진다고 보여지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는 방지할 수 없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1975년에 49,522건이던 것이 학생의 교복과 두발이 자율화된 1982년에는 86,347건, 1983년에는 전체범죄의 12%인 97,1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포악화, 집단화, 지능화, 연소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靑年對策委員會, 1984:430-31)

이러한 목적과 이유들로 해서 청소년의 의식구조, 가치관, 행동양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수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며, 전문가와 청소년관계 기관 및 단체들에 의해서 다각적인 대책이 제시되고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청소년문제 연구의 대부분은 청소년 자체에 대한 심층분석이나 이해를 도모하기 보다는, 그 시각을 우선적으로 그들의 비행이나 일탈행위 등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왔고, 또한 대책적인 측면에서도 단기적이고 처방적이며, 교육이라는 단일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져 왔다는 비판이다.(이재창, 최운실, 1984:40)

本稿에서는 지난 20여년 동안에 국내에서 행해졌던 청소년의 의식구조 및 가

치관에 관한 實證 연구들을 概括해봄으로서, 현재 靑소년들의 가치의식을 파악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사회변동에 따라 그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전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靑소년의 가치의식을 개괄하기에 앞서 우리 나라 靑소년 인구의 현황과 가치의식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 보기로 한다.

## 2. 靑少年人口의 動態

1983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靑소년인구(0~24세)는 전체 인구의 54.4%인 21,735천명에 이르고 있다. <表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60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있던 靑소년인구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현재 54퍼센트에 이르게 된 것이다.

<表Ⅱ-1> 年度別 靑少年 人口의 推移

(단위 : 천명)

年 度	總 人 口	靑 少 年 人 口					
		計	0~4	5~9	10~14	15~19	20~24
1944	25,120	15,070 (60.0)	4,279 (17.0)	3,563 (14.2)	3,009 (12.0)	2,350 (9.4)	1,869 (7.4)
1949	20,167	12,133 (60.2)	5,878 (29.2)	5,878 (29.2)	2,515 (12.5)	2,023 (10.0)	1,718 (8.5)
1955	21,502	13,014 (60.5)	3,377 (15.7)	2,867 (13.3)	2,621 (12.2)	2,395 (11.1)	1,754 (8.2)
1966	29,160	17,691 (60.7)	4,481 (15.4)	4,613 (15.8)	3,590 (12.3)	2,708 (9.3)	2,299 (7.9)
1970	31,435	18,853 (60.0)	4,316 (13.7)	4,532 (14.4)	4,393 (14.0)	3,088 (9.8)	2,523 (8.0)
1975	34,679	20,478 (59.1)	4,227 (12.2)	4,454 (12.8)	4,527 (13.1)	4,147 (12.0)	3,123 (9.0)
1980	37,407	20,950 (56.0)	3,795 (10.1)	4,421 (11.8)	4,490 (11.9)	4,240 (11.3)	4,054 (10.9)
1983	39,951	21,735 (54.4)	4,276 (10.7)	4,000 (10.0)	4,612 (11.5)	4,335 (10.9)	4,512 (11.3)

資料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註 : 1. ( )는 構成比임.

2. 1983년은 推계인구이고 그외는 센서스 人口임.

出處 : 靑少年對策委員會, 「靑少年白書」, 1984.

총인구에 대한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表Ⅱ-2 참조), 2000년에는 42.2%, 2050년에는 현재의 선진국 수준인 33.0%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sup>①</sup> 그러므로 현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인구는 21세기 중반에 가서는 적어도 1/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表Ⅱ-2〉 靑少年 人口의 推計

(단위: 천명)

年 渡	總 人 口	靑少年人口	0~4	5~9	10~14	15~19	20~24
1985	41,209	21,672 (52.6)	4,387 (10.7)	3,965 (9.6)	4,426 (10.7)	4,425 (10.7)	4,469 (10.9)
1990	44,261	21,430 (48.4)	4,397 (9.9)	4,321 (9.8)	3,935 (8.9)	4,396 (9.9)	4,321 (9.9)
1995	47,250	21,286 (45.1)	4,389 (9.3)	4,338 (9.2)	4,292 (9.1)	3,909 (8.3)	4,358 (9.2)
2000	50,066	21,139 (42.2)	4,352 (8.7)	4,334 (8.7)	4,311 (8.6)	4,267 (8.5)	3,875 (7.7)
2050	61,310	20,227 (33.0)	4,145 (6.8)	4,111 (6.7)	4,053 (6.6)	3,966 (6.5)	3,951 (6.4)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出處: 靑少年對策委員會, 「靑少年白書」, 1984.

청소년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청소년의 문제가 따라서 감소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청소년층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정책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노인계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경향으로 청소년 인구 구성비의 감소는 다른 인구층과의 정책경쟁에서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金信—1983: 7).

청소년 인구동태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도시집중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表Ⅱ-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청소년 가운데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1966년에 33.5%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57.9%로 증가하였다. 특히 15~19세는 도시거주자가 61%이고, 20~24세의 청소년 인구는 64.1%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인구의 도시화 추세는 인구의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소년문제는 곧 도시청소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表 II-3〉 青少年 人口의 都市·農村 構成

(단위 : 천명)

區 分		青 少 年 人 口					
		計	0~4	5~9	10~14	15~19	20~24
1966	計	17,691 (100.0)	4,481	4,613	3,590	2,708	2,299
	市 部	5,927 (33.5)	1,287 (28.7)	1,423 (30.9)	1,221 (34.0)	1,101 (40.7)	895 (39.0)
	郡 部	11,764 (66.5)	3,194 (71.3)	3,190 (69.1)	2,369 (66.0)	1,607 (59.3)	1,404 (61.0)
1970	計	18,852 (100.0)	4,316	4,532	4,393	3,088	2,523
	市 部	7,792 (41.3)	1,650 (38.2)	1,578 (34.8)	1,677 (38.2)	1,593 (51.4)	1,294 (51.3)
	郡 部	11,060 (58.7)	2,666 (61.8)	2,954 (65.2)	2,716 (61.6)	1,495 (48.6)	1,229 (48.7)
1975	計	20,478 (100.0)	4,227	4,454	4,527	4,147	3,123
	市 部	9,949 (48.6)	2,070 (49.0)	1,926 (43.2)	1,904 (42.1)	2,305 (55.6)	1,744 (55.8)
	郡 部	10,529 (51.4)	2,157 (51.0)	2,528 (56.8)	2,623 (57.9)	1,842 (44.4)	1,379 (44.2)
1980	計	20,950 (100.0)	3,795	4,421	4,440	4,240	4,054
	市 部	12,135 (57.9)	2,273 (59.9)	2,420 (54.7)	2,255 (50.8)	2,588 (61.0)	2,599 (64.1)
	郡 部	8,815 (42.1)	1,522 (40.1)	2,001 (45.3)	2,185 (49.2)	1,652 (39.0)	1,455 (35.9)

資料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註 : ( )는 構成比임.

청소년 인구의 구성은 취학, 취업, 무소속(무직 및 미진학)으로 나눌 수 있다. 1980년의 12~24세 청소년 인구를 그 소속별로 보면 〈表 II-4〉에서와 같이 학교재학이 43.5%, 취업이 26.6%, 그리고 기타가 29.9%이다. 기타에 속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軍에 복무중이지만 나머지는 무직 혹은 미진학 청소년들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연령층 인구 1,100만명 가운데 약 500만명이 학생이고, 300만명이 취업중이며 나머지는 미취업 또는 군복무중인 셈이다.

〈表 II-4〉 靑少年 人口狀況：12~24세(1980)  
(단위：천명)

구 분	수	구성비(%)
전 체	11,296	100.0
학교 재학	4,900	43.5
취 업	3,007	26.6
기 타	3,379	29.9

資料：한국은행연감, 문교통계연감,  
노동통계연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 인구는 연령적으로 0세부터 24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10세전까지는 의식이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0세에서부터 24세에 이르는 중고등학생(대학생은 제외) 근로청소년과 기타 청소년의 가치의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10대 청소년의 문제는 바로 그들이 처한 생애 주기의 단계가 지니는 내재적인 정체 불확실성과 빠른 성장변화의 경험이라는 데 있으므로 이들에게서 어떤 뚜렷한 가치의식을 스스로 갖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김경동 1980 : 356)는 점이다.

### 3. 靑少年 價値意識의 概念

“價値意識”이란 용어는 외면상 “價値觀”이란 용어와 “意識構造”란 용어의 합성어로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대한 개념이 먼저 정의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들 각 개념의 의미는 이를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가 않다.

가치관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는 Williams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가치관 選好的 관심(preferential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상황 사건 및 사물을 좋다-나쁘다,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 못하다로 지적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Williams, 1952 : 374-80) 이와 유사하게 鄭範謨교수는 가치 혹은 가치관을 여러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鄭範謨, 1977 : 17)으로 정의하고 있다.

黃禎圭교수는 가치를 情意的인 성질을 띤 속성으로서 是非, 善惡, 適否의 판단적 방향을 갖는 내면화된 문화규범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치가 여러가지 사태에서 방향감각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內顯, 外顯하도록 일반화되고 조직화

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黃禎圭, 1972 : 614) 한편 朴容憲교수는 “가치관은 문화적으로 전승된 사회생활의 규범적 원리와 선악시비를 판단하는 평가적 표준이나 구성된 개인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내면화된 심리적 특성으로서 사회적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규정해주는 동기적 기능을 가지며… 가치관은 문화적으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전승되어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성격 및 다른 심리적 특성들에 내면화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거나 외국의 가치관에 쉽게 동화되거나 하지 않고 비교적 오래 지속하게 된다.”(朴容憲, 1982 : 89-90)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의식구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黃禎圭교수는 한 개인이 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고방식(a way of thinking)’으로 보고, 이를 認知的 의식구조와 情意的 의식구조로 나누어 볼 때, 전자에는 자각의식, 사고의식이, 후자에는 태도, 가치관, 자아개념, 도덕성, 정신건강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黃禎圭, 1979) 朴容憲교수는 의식구조란 “사물이나 사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知覺, 認識, 評價, 態度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행동의 선택으로 인도하는 의견, 판단, 신념 등의 정신작용”(朴容憲, 1982 : 90)으로 보고 있다.

한편, 朴교수는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관계에 관해서 가치관이 “의식구조를 포함한 다른 특성들을 모두 내포하면서 평가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된 中核的이고 深層的이며 高次元的 특성이며, 의식구조는 가치관의 下位에 위치하면서 다른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특성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黃교수의 “가치관이 의식구조에 포함된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여하간에 본 세미나의 성격에 비추어 가치관과 의식구조 중 어느 것이 上位概念이나에 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가치의식”이란 것은 이상에서 살펴 본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즉, 본 주제의 성격상 “가치의식”이란 사회구성원의 행위와 사상에 대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방향을 부여하는 思考體系로서 상황에 대한 일정한 認知 態度, 評價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고의 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로 가치의식을 정의할 때, 청소년 계층의 가치의식이란 자신과 그를 둘러 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매

처하는가 하는 性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가치의식을 갖는 대상과 상황을 구분하고, 이 대상과 상황에 대한 가치의식을 지금까지 행해졌던 實證的 연구의 발견점을 근거로 하여 논의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實證的 연구들에서 나타난 가치의식의 영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 ①自劃像 혹은 自我概念
- ②家族觀
- ③長幼有序觀
- ④職業觀
- ⑤人生觀
- ⑥交友觀
- ⑦異性觀

#### 4. 對象領域에 따른 價値意識

##### 1. 自劃像 및 自我概念

청소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많은 國內外 연구들이 자아개념을 그 연구내용으로 삼고 있다. 자화상 혹은 자아개념에 관한 정의는 학자 혹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증적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개념은 자신의 일, 신체적 조건, 성격, 존재가치 및 대인관계 등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행해진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들에서 자아개념과 관련된 변수들로서는 연령, 성별, 성장지(도시와 농촌),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소속집단(예전대 각급학생과 근로청소년) 등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

자아개념에 관한 실증연구 중, 대표적인 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 5,026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韓國教育開發院의 李載昌外 4인이 행한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에서는, (李載昌外 4人, 1981)

①도시 청소년들이 농촌 청소년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낸다. 특히 전통적 특성이 상실된 도시의 환경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전통적, 교육적, 문화적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②자아개념은 집단별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상급학교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이며, 정규 중·고·대학생 집단 등이 비정규학생집단과 또한 비행청소년 집단보다 더욱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

③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 경향을 보이는데, 15~17세에서는 14~15세보다 자아개념이 다소 하강 내지 정체하는 현상을 보이나, 18세 이후에는 다시 상승현상을 보인다

④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⑤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은 가정의 일반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성장지, 도시내 거주지, 가정에서의 의사결정형태,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 養育者別도 큰 차이가 있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이 2,771名の 남녀청소년(중학생 614명, 고등학생 962명, 재수생 211명, 근로청소년 421명, 대학생 563명)을 대상으로 한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第四章 靑少年의 自我概念과 價値觀을 참조할 것)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즉,

①학생집단의 경우 상급학교로 갈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낸다. 또 재수생과 근로청소년 집단을 비교해 보면 재수생집단이 더욱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드러내고 있다.

②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들보다 자기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③중소도시를 제외하고는 성장지가 농촌지역일수록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연령,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성장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치 않고 한국 청소년 일반의 자아관이 전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힘들다. 다소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으나, “서울시내 주요 일간지에 발표한 젊은이의 발언, 시각 등의 특별기고문”의 내용을 분석한 김경동교수의 보고에 따르면 자아인식 또는 자아상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을 강하게 꼬집고 있다”는 것이다.(김경동, 1980 : 356-58)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관의 특성으로서, 김교수는 의례주의(현실순응, 타협태도, 소시민적 무사안일주의), 출세지향 개인주의(자기중심적 이기주의), 동조(타자지향 가치관), 패배주의(사회부조리에 대한 비판의 결여와 방관적인 태도), 향락주의, 반항의식(미숙한 사회비판)등을 지적하고 있다.

## 2. 家族觀

가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가치의식은 孝道觀, 扶養觀, 祖上觀, 家門觀 등이 몇가지의 실증적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효도는 전통적인 家父長的 대가족 제도 아래서 우리 민족에게 강조되어온 사상이다.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태도는 오늘날과 같은 부중심·자녀중심의 핵가족제도 아래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

1973년에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당신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무조건 복종한다”가 3.3%, “우선 복종하고 나중에 말씀드린다”가 53.7%, 그리고 옳지 않을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다”가 38.8%였다.(中央青少年保護對策委員會, 1973) 이와 같은 질문으로 1979년과 1984년에 靑少年對策委員會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무조건 복종한다”가 각각 7.4%와 6.7%, “우선 복종하고 나중에 말씀드린다”가 각각 62.8%와 61.5%, “옳지 않을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다”가 각각 28.5%와 29.7%로 나타났다.(表Ⅳ-1참조).

부모를 부양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셔야 한다”는 응답이 59.7%로 반을 넘고, “생활형편에 따라 모신다”가 32.5%로 이를 합하면 92.2%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祖上觀은 曾祖父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를 근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분을 자세히 알고 있다”가 10.2%, “이름 정도 알고 있다”가 20.7%,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가 57.6%, “알 필요 없다”가 1.0%로 나타나고 있어, “뿌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희박한 것을 알 수 있다.

(表 IV-1)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1984년 조사결과

항 목	계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근로청소년	농촌청소년
1. 무조건 복종한다	6.7	9.2	4.8	1.9	5.3	12.1
2. 우선 복종하고 나중에 말씀드린다	61.5	45.9	63.4	68.1	67.2	62.9
3. 옳지 않을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다	29.7	41.7	29.5	27.7	26.1	23.5
4. 모르겠다	1.6	2.4	2.0	1.7	0.7	1.1
5. 무응답	0.6	0.8	0.3	0.6	0.7	0.4
응답자수	8,126	1,698	1,418	805	2,481	1,814

資料：靑少年 對策 委員會，「靑少年白書」，1984：83

家門觀을 파악하기 위해서 “혼인할 때 상대방의 가문을 보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문을 꼭 보아야 한다”가 10.0%, “가문도 보아야 한다”가 55.6%이며, “가문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31.0%였다.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은 연령층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중학생과 고교생의 경우 각 50.9%와 54.3%가 가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학생과 근로청소년은 각각 64.3%와 78.0%로서 가문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의식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李載昌外 4인이 행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8개의 가치 항목 중에서 ‘가족의 안전’ ‘성취감’, ‘우정’ 등을 1위, 2위, 3위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李載昌外 4人, 1981)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직도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이웃과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有親의인 성향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3. 長幼有序觀

효도와 함께 長幼有序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치의식으로 받아들여져 왔

다.우리가 흔히 “요즈음의 젊은이는 버릇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이러한 가치의식이 크게 해이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長幼有序에 대한 가치의식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서 상용되고 있는 것은 버스 내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9년에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96%의 절대다수가 좌석을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반응하고 1.7%만이 양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응했다.(金永喆, 1974) 73년의 중앙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의 결과 또한 “무조건 자리를 양보한다”가 30.1%, “되도록 양보한다”가 53.3%, “경우에 따라 양보하지 않아도 좋다”가 15.7%로 반응했다.中央靑少年保護對策委會, 1973)

1979년도 1984년도의 청소년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무조건 양보한다”가 각각 27.2%와 27.5%였고, “되도록 양보한다”가 각각 69.2%와 69.3%였으며,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각각 2.3%와 2.2%였다.(靑少年對策委員會, 1984 : 85-6)

이상의 조사결과를 두고 볼 때,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에게는 아직도 長幼有序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의식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나, 이 의식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소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職業觀

청소년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가치의식은 직업과 근로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1967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朴仁休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바라는 직업으로서 수입이 많은 직업이 첫째이고(35.9%), 그 다음은 수입이 적어도 명예로운 직업이며(32.0%),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28.0%)의 순으로 나타났다.(朴仁休, 1969)

靑少年對策委員會에서 1984년에 조사한 勤勞觀에 따르면,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表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의 才能을 살리기 위하여”가 36.4%이고, 다음은 돈을 벌기 위하여”가 28.5%이며, “국가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가 26.5%등이다.

한편 이 응답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중·고학생, 대학생, 그리고 근로청소년 및 농촌청소년 간에는 勤勞의 목적이 52.7%로 두드러진 반면 근로청소년

과 농촌靑소년의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 勤勞를 한다는 것이 각각 39.1%와 37.6%로서, 靑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환경이 근로에 대한 가치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IV-2〉 靑少年의 勤勞에 대한 價値意識

(단위 : %)

항 목	계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근로靑소년	농촌靑소년
1. 돈을 벌기 위하여	28.5	19.5	29.5	16.9	39.1	37.6
2. 명예를 얻기 위하여	1.9	1.9	1.3	2.2	2.8	1.2
3. 국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26.5	36.8	30.3	19.6	22.7	23.1
4. 자기의 재능을 살리기 위하여	36.4	38.0	35.0	52.7	26.7	29.4
5. 기 타	3.5	1.6	2.7	6.2	2.7	4.3
6. 무응답	3.2	2.2	1.1	2.4	5.9	4.4
응답자수(명)	8,216	1,698	1,418	805	2,481	1,814

資料 : 靑少年 對策 委員會, 「靑少年白書」, 1984 : 93

### 5. 人生觀

靑소년들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靑소년보호대책위원회에서 1973년, 1979년, 1984년에 걸쳐 실시한 의식 조사를 들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여러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다음 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表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생을 즐겁게 산다”(1973년 조사에서는 “돈이나 명예를 생각치 않고 취미에 맞는 생활을 한다”)가 가장 두드러진 인생의 목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의식은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반면, “국가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79년에 서울靑소년회관에서 학생, 근로靑소년, 무직靑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중에서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 가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23.2%) 보다도 “나 좋은 대로 사는 것(45.9%)”,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되는 것”(16.9%), “사회적 지위

를 얻는 것”(11.4%)등 이기적인 인생의 목표가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일반적 인 경향이며, 특히 학생집단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나 좋을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은 歐美諸國의 청소년들(미국 77%, 스웨덴 85%, 불란서62%)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靑少年會館, 1979 : 147-49)

〈表 IV-3〉 人生의 目標

항 목	1973	1979	1984
1. 열심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11.7	15.4	12.4
2. 착실하게 공부하여 명예를 얻는다	13.5	8.1	11.1
3. 인생을 즐겁게 산다(돈이나 명예를 생각치 않고 취미에 맞는 생활을 한다)	29.3	40.2	46.7
4. 국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3.0	32.7	26.2
5. 부정을 이겨가면서 정직하게 산다(1973)	27.4	—	—
6. 그날 그날 그럭저럭 지낸다	11.2	—	1.3

資料 : ① 中央靑少年 保護對策 委員會, 「靑少年의 意識에 관한 調查 研究」, 1973

② 靑少年 對策 委員會, 「靑少年白書」, 1984

〈表 IV-4〉 靑少年 集團別 人生의 目標

(단위 : %)

選 擇 肢	學 生	勤勞靑年	無職靑年	平 均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되는 것	8.9	23.0	17.3	16.9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	9.9	11.6	17.3	11.4
나 좋은대로 사는 것	60.8	35.8	36.7	45.9
사회를 위해 기여 하는 것	17.7	27.1	24.5	23.2
人 員 數	688	888	139	1,715

資料 : 서울靑少年會館, 「靑少年 意識에 관한 調查 研究 報告書」, 1979

## 6. 交友觀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사람을 친구로서 선택하고자 하는가 하는데 대한 몇 개의 실증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1967년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朴仁休의 “학생이 친구를 사귄 때

택하고 싶은 타인의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順을 보면,

- ①신의(믿음성)가 두터운 사람(55.7%)
- ②취미가 자기와 비슷한 사람(14.1%)
- ③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11.8%)
- ④가정환경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10.3%)

⑤외모가 단정한 사람(5.6%)이었고(朴仁休,1969) 1969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철의 조사에서, “당신은 어떤 성격을 가진 친구를 가장 좋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①원만하고 명랑한 사람(28%), ②인생의 의미나 자기의 태도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27.4%), ③능률적이고 부지런하며 실용적인 면에 마음을 쓰는 사람(19%), ④희생적이고 무엇에나 앞장 서는 사람(10%), ⑤지도적인 능력을 갖고 조직적인 계획을 잘 짜는 사람(8.4%), ⑥예술적이고 정서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4.8%)등의 순이었다.(김영철 1974)

1973년의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친구의 가장 좋은 점으로 ①이해심(47.8%) ②원만, 명랑성(22.7%), ③정직성(14%), ④노력, 근면(7.2%), ⑤자제, 계획성(4.7%)등이 지적되었다.

〈表 N-5〉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항 목	계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근 로 청 소년	농 촌 청 소년
1. 성격이 원만한 친구	10.3	4.5	9.0	14.0	11.5	12.7
2. 정직하고 성실한 친구	29.8	26.2	28.2	30.2	30.7	33.7
3. 이해심이 많은 친구	12.8	11.8	12.4	15.3	12.1	12.5
4.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	1.4	0.2	1.2	1.2	1.4	3.2
5. 의리 있고 인성 많은 친구	21.5	32.8	23.5	17.9	13.9	19.5
6.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는 친구	0.7	1.0	0.5	0.4	1.0	0.6
7. 환경이 비슷한 친구	0.5	0.5	0.4	0.5	0.3	1.0
8. 고민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	18.5	19.0	21.6	15.3	22.6	13.9
9. 기 타	0.3	0.1	0.3	1.0	0.2	0.1
10. 무응답	4.0	3.9	2.9	4.2	6.3	2.8
응 답 자 수	8,216	1,698	1,418	805	2,481	1,814

1984년에 실시한 靑少年對策委員會의 조사 결과는 <表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가 “정직하고 성실한 친구”(29.8%), 둘째가 “의리있고 인정많은 친구”(21.5%), 세째가 “고민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18.5%), 다섯째가 “이해심이 많은 친구”(12.8%), 끝으로 “성격이 원만한 친구”(10.3%)등의 순이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들을 두고 볼 때,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친구 선택기준 으로서는 “성격이 원만하고 명랑한 친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친구”를 더 선호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인간성 자체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보여진다.

## 7. 異性關係

청소년들 중에서 異性の 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 비율은 연구자와 조사대상 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973년의 조사에서는 26.7%, (中央靑少年保護對策委員會, 1973) 1978년의 조사에서는 37.5% (閔秉根·崔祥鎭·李吉弘, 1978)로 보고되었고, 1980년의 청년학생조사에서는 28.9%, (서울靑少年會館, 1980) 그리고 1981년의 산업장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7.1% (崔日燮, 1981)로서 대체로 30~40%의 고등학생 이상 연령층의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異性間에 친구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교나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일반에서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한 것이 「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유교적 전통을 지닌 우리 나라의 현실이기도 하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결혼 전에 이성과의 육체적인 性關係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婚前的 성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와 관련하여 大韓家族計劃協會와 서울大學校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에서 工團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5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表Ⅳ-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進步的 태도를 가진 者가 11.7%이며, “절대로 안된다”는 극히 保守的인 견해를 갖고 있는 者가 34.1%이고 “가능하면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52.2%이다. 예상할 수 있는 대로, 婚前性關係의 贊反에 대해 남녀 간의 견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保守的인 견해를 갖는 남자가 12.0%에 불과한데 반해 여자의 경우 47.7%나 되고 있다. 또 進步的인 견해를 갖는 남자가 28.0%

나 되는 반면, 여자는 1.6%밖에 되지 않는다.

〈表 IV-6〉 婚前 性關係에 대한 態度

		무 응 답	당연하다	가능한 것 않는 것이 좋다	절 대 로 안 된 다	계
男	기 숙 사	—	44(48.9)	43(47.8)	3(3.3)	90(100.0)
	비기숙사	—	19(14.1)	92(68.1)	24(17.8)	135(100.0)
	계	—	63(28.0)	135(60.0)	27(12.0)	225(100.0)
女	기 숙 사	2(1.4)	4(2.7)	62(42.5)	78(53.4)	146(100.0)
	비기숙사	10(4.6)	2(0.9)	111(50.7)	96(43.8)	219(100.0)
	계	12(3.3)	6(1.6)	173(47.4)	174(47.7)	365(100.0)
계		12(2.0)	69(11.7)	308(52.2)	201(34.1)	590(100.0)

이 조사결과를 통해서 산업장청소년들은 婚前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保守的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남녀간의 性에 대한 二重的인 가치의식이 뚜렷함을 엿볼 수 있다.

### 5. 靑少年 價値意識의 變化와 展望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해방 이후 40년간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가치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2000년대를 앞두고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既存의 실증적인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있었다.

청소년의 가치의식에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는 상당한 수가 있었지만, 첫째 가치의식의 개념과 영역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주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조사대상층의 표집이나 통계처리 등 조사방법상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 어떤 가치의식이 긍정적이고 어떤 가치의식이 부정적인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넷째 대부분의 연구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행해져 가치의식의 時系列的인 변화를 찾아내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자기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기존연구에 비친 청소년들이 가치의식의 특성을 再構成하고 앞으로

의 예상되는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가치의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실증적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거나 시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치의식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가치의식보다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가치의식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전통적인 가치의식에 집착하기 보다는 점차 근대적, 서구적, 개방적인 가치의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거의 모든 가치의식의 대상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범사회적 범국가적인 것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가족중심적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인생관, 직업관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치의식과 이를 기반으로 해서 표출하는 행동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은 현실 세태와 기성세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면서도 스스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거나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김경동, 1980: 360). 이러한 현상은 보수적인 정치·경제체제에서 청소년들이 패배주의, 의례주의 또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소외의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윤리적 문제 사태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신념이나 의견을 내세울 때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강력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기들이 그같은 상황에서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입장이 되면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현실 긍정적, 타협적, 실리추구적, 욕구충족 지향적, 자기본위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이재창의 4인, 1981: 49).

청소년들이 이상과 같은 가치의식을 배태하게 된 배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지난 40년 간에 우리나라가 경험한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가치의식의 온상이 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모해갈 것인가?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되고 국제사회의 여건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과거 20여년에 걸쳐 변화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사회는 분명 상당히 풍요한 소

비지향의 대중사회, 대규모화된 조직사회, 공업화와 도시화가 고도로 진보된 사회, 과학기술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사회, 그러면서 어림껏이나마 복지사회를 향한 정책을 추구하는 사회”에로 발전해 갈 것이다.(김경동, 1980 : 364)

이와 같은 사회·경제구조적인 변화는 한국 국민의 가치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며, 사회화를 통해 가치의식을 형성해가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비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풍요한 사회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소비 지향성과 그것을 자극하는 경제체제는 사회성원, 특히 청소년들의 욕구수준을 급속도로 상승시켜 놓을 것이며, 상승된 욕구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주의, 요령주의, 「한탕」주의, 찰나주의적인 가치성향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들의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원망격차와 상대적 박탈감 등이 격증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지향적인 경제체제는 “준거집단의 성격과 규범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움직이는 他者指向的인 인간형”을 형성하게 되며, 재미의 도덕이 일의 윤리를 대치하는 소비, 여가, 재미 우선적 가치의식이 팽배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평가기준도 내재적 가치보다는 “돈을 얼마나 버는가” 하는 물질적 가치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인간은 점차 객체화되고 교환가치화하게 될 것이다(김경동, 1980 : 364).

도시화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도시화현상은 유명한 도시사회학자 Wirth가 지적한대로 인구의 다량화, 과밀화, 주민과 집단간의 이질성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간의 상호인지도를 감퇴시킴으로써, 표면적이고, 비인격적이며, 일시적이고, 익명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화현상은 우리가 이미 실증적인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주목했던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인 가치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화와 함께 진행될 공업화현상은 산업구조, 직업구조, 계층구조의 변화와 함께 조직사회와 관료화 등의 현상을 수반하게 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전통적인 귀속주의적, 위계적, 특수주의적, 집합주의적, 1차적 관계로부터 업적주의적, 평등주의적, 보편주의적, 개인주의적, 2차적 관계로 변모시킬 것이다(김경동, 1980 : 364). 공업화에 따른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변화는 도시화현상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치의식의 변화에서 주목했던 가치의식을 가속

시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는 전 사회성원의 가치의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가치의식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가치의식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형성되어 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어진 현실에 불만을 갖고 반항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 남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한다면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가치의식의 개조는 그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개조와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경동

1980 현대 사회와 인간의 미래, 평민사

金永喆

1974 “韓國中等學校 學生의 價値觀” 教育論叢 2,3集,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金信一

1983 “青少年 問題의 研究動向”, 青少年問題의 實態와 改善 方案研究, 現代社會研究所 1983. 12

閔乘根, 崔祥鎭, 李吉弘

1978 오늘의 靑少年: 靑少年의 意識構造와 行動樣式 中央大學校 永信아카데미 연구원 韓國靑少年 問題研究所

朴容憲

1982 “韓國人의 意識構造와 價値觀”, 意識改革의 必要性和 實踐方向, 社會浮化委員會

朴仁休

1969 “高等學校 學生의 價値觀”, 教育研究 7,8集, 中央大學校 教育學會

이재창, 최운실

- 1984 “한국靑소년의 의식구조”, 한국靑소년,靑소년연맹 1984년 가을-통권6호  
이재창外 4인
- 1981靑少年 問題 綜合診斷研究—自我概念과 價値觀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1981년 12월  
서울靑少年會館
- 1979靑少年意識에 관한 調查研究報告書—世界靑年과의 比較  
1980靑少年의 日常生活에 관한 調查研究報告書
- 鄭範謨
- 1977 “價値觀과 教育”, 교육신서 제1권, 배양사  
中央靑少年保護對策委員會
- 1973靑少年의 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崔日燮
- 1981 “産業場靑少年의 家族計劃과 性에 대한 知識 및 態度에 관한 調查報告書”, 大韓  
家族計劃協會, 서울大學校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靑少年對策委員會
- 1984靑少年白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1982韓國靑少年의 生活과 産業社會의 社會科學 教育  
黃植圭
- 1972 교육평가, 교육출판사  
1979韓國學生의 意識構造, 高大教育問題研究所